

“청소년에 선한 영향력 주는 협회 만들겠다”

김정은 제2대 전남도청소년지도사협회장 취임

수련관·문화의집·야영장 등 청소년지도사 250여명 근무
청소년 역량강화·지도사 전문성 향상 등 5개안 실천 주력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현장과 지도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도청소년지도사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정은(54) 광양YMCA 사무총장을 제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지난 1996년 광양YMCA에서 근무를 시작한 김 회장은 광양YMCA 사무총장, 광양시청소년

문화의집 관장,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장, 광양 시교육참여위원, 여수출입국사무소 사회봉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청소년·사회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

협회 소속 청소년지도사들은 청소년수련관 8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3개소, 청소년수련원 12개소, 청소년야영장 6개소, 유스호스텔 9개소, 방과후아카데미 34개소 등에서 250여명이 근무 중이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일어



“특히 청소년 역량강화 사업, 청소년지도사 전문성 향상, 청소년지도사 조사 연구, 청소년 정책·제도 마련, 청소년지도사 권익 증진 등 5개 실천 방안에 대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고 있는 청소년 현장에서 ‘다시 청소년’이란 생각으로 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사회가 함께 해야 할 부분과 청소년 정책으로의 뒷받침에 대해 고민하고 청소년지도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청소년들은 존재 만으로도 빛이라고 한다”며 “세상의 빛인 청소년들과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청소년지도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년 2월 창립한 전남도청소년지도사협회는 청소년지도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청소년지도사 역량 강화, 권익 증진 및 윤리 확립을 위한 전문가 협력체다.

청소년지도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연수와 정을 마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관련 전문 직업군이다. 청소년 수련활동, 지역·국가간 교류, 동아리, 봉사, 예술 활동 등을 지도하며 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유스호스텔·청소년센터 등에 활동 중이다.

/목표=정해선 기자



조선대 김일태·김문태·김민철 교수(왼쪽부터).

조선대 김일태·김문태·김민철 교수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촉

조선대학교 김일태(만화·애니메이션학과)·김문태(경영학부)·김민철(스포츠산업학과) 교수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2년 1월 31일까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출범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조망해 조직을 확대해 왔다.

김일태 교수는 2019년~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에 이어 문화예술분야를 비롯한 국민들의 소통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김문태 교수는 전남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정책기획 선임연구원, 조선대 산학부처장·창업보육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역사회 회계·재무 분야 전문가로 활약할 예정이다.

김민철 교수는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이사와 한국사회체육학회 및 한국체육학과 이사를 맡고 있으며 JTBC 3 Sports 배구 해설위원, 광주시 미래비전 자문위원, 전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에서 지역사회 스포츠 및 스포츠산업 분야 전문가로 활동할 예정이다.

/최경범 기자



나주교육청, 1인 1청렴화분 가꾸기 운동 전개

나주교육지원청은 7일 “최근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1인 1청렴화분 가꾸기’ 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전 직원이 자신의 청렴 의식을 스스로 다짐하기 위해 자기가 직접 청렴 문구를 꽃말에 작성해 청렴 의식 제고에 깊이를 더했다. 청렴화분을 사무실 책상에 비치해 매일 바라봄으로써 일상 속에서 개인의 청렴 의식을 키우고 지역경제 회복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한점기 행정지원과장은 “나주 관내 모든 교직원의 청렴 의식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청렴 명언 및 청렴 선언 내용을 담아 인증사진을 찍고 다음 사람을 지칭하는 청렴 캘린더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길 나주교육장은 “청렴화분 가꾸기로 지역 화해농가를 돕고 직원들이 일상에서 청렴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영수 기자



건보공단 호남제주본부, 헌혈 나눔 캠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는 코로나19로 헌혈량이 낮아져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에 지난 5일 지역본부 사옥 앞에서 임직원 단체 헌혈을 실시했다.

이날 헌혈 행사는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진행, 행사 이후 헌혈증은 수혈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이웃에게 전달 예정이었다.

안수민 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혈액 수급에 힘겨울 의료현장과 혈액을 필요로 하는 환자, 그 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 임직원은 지역사회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송지 기자



광산경찰서, 학교폭력 예방 집중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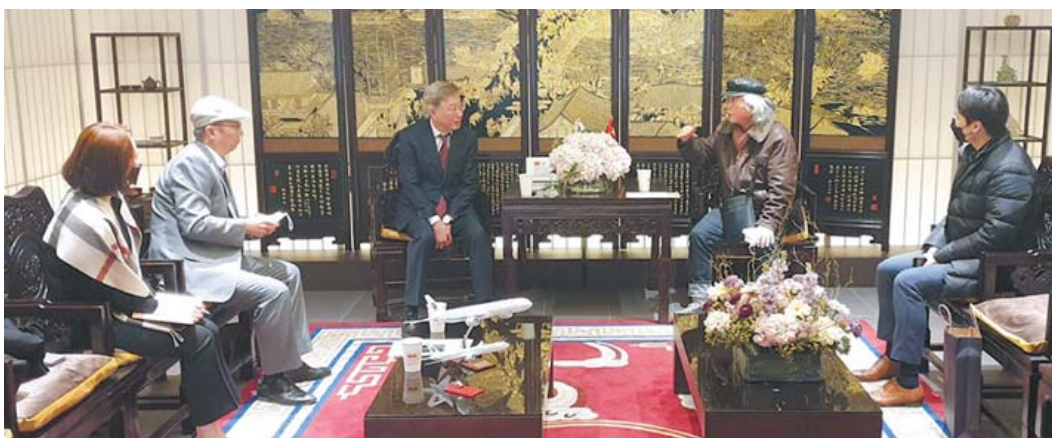
광주 광산경찰서(서장 김광남) 여성청소년과는 2021년도 신학기를 맞아 지난 4일 평동중학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요령 등에 관한 집중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한 학교폭력 예방 교실에서는 최근 언론에 연이어 터져 나오는 연예인, 프로스포츠계 스타들의 재학시절 학교폭력 사례를 들면서 학생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의 위험성 및 추후 미래에 미칠 영향등 사례들을 설명하고, 최근 들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사이버 범죄 학교폭력에 대해 집중교육을 통해 예방 및 대처 방안 등을 안내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다짐했다.

광산경찰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학교에 등교하는 초·중·고등학생들이 광산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학교폭력 없는 즐거움이 가득한 학교생활 및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학교폭력 및 주변 폭력적 환경이 사라지는 날까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효석 기자



광주차이나센터-한·중 미술협회 교류 협력 추진

광주 차이나센터(센터장 조경완 호남대 교수)가 2021~2022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를 맞아 한·중 미술협회와 활발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중 미술협회 차흥규 명예회장과 상바이 작가(제주 화교화인 연합회 부회장) 등은 지난 3일 광주차이나센터를 방문, 4월 말 ‘한·중 미술작가 교류전’을 차이나센터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등

한중 미술 교류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교류전에는 한국과 중국 유명 작가의 작품들이 대거 전시될 예정이다.

조경완 센터장은 “한·중 미술작가 교류전을 시작으로 향후 양국 간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경범 기자



담양군, 치매예방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담양군이 최근 치매예방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치매예방관리자 1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발원 체크,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은 치매 전문교수를 초빙, 치매 예방과 통합적인 인지기능 증진 방법 등 치매예방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강의로 이뤄졌다.

치매예방관리자는 2019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통해 양성됐으며 22개 마을 190여명의 지역 주민에게 인지 강화 및 감각, 신체, 공예, 영양 교육 등 전문 교육을 제공했다.

김순복 담양군치매안심센터장은 “역량 강화 교육이 지역사회 치매 관리 효율성 제고와 치매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디오션리조트, 여수세무서장 표창 수상

여수 디오션리조트가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여수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여수세무서(서장 김상규)는 7일 “최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국민의 성실 납세와 세정 협조에 감사하고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표창 수상자만 참석하는 등 규모를 줄여 간소하게 진행됐다.

성실한 납세 이행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아 디오션리조트(대표 유광현) 유지용 경영지원실장이 여수세무서장 표

창을 받는 등 모범 납세자와 세정 협조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장 이상 수상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수상일로부터 세무조사를 유예받고 민원봉사실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증명 발급과 대출 금리, 신용평가 우대 등 사회적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국세청과 지방청, 세무서 누리집에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명단을 게시해 성실 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광주차량화재 진압3명에 ‘용감한 119시민상’

광주 북부소방서는 지난 4일 오전 본서 2층 소회의실에서 지난달 발생한 양동시장 앞 도로 차량화재사고 현장에서 화재진압 등에 큰 기여를 한 시민 3명에게 용감한 119 시민상을 수여했다.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시민들은 지난달 22일 양동시장 앞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 현장을 목격한 양동시장 인근 상가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신속하게 119 화재신고와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초기대응을 실시했다.

북부소방서는 출선수범해 더 큰 피해 예방에 앞장선 김휘남씨 등 2명에게 용감한 119시민상을 직접 수여했고 참석하지 못한 1명에게는 표창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동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에 마스크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흥식)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지회장 김상재)에 마스크 7천매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마스크는 광주 지역 외식업종사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상재 지회장은 “적십자사의 마스크 지원에 감사하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많은 분들이 마음 편히 외식업소를 방문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부음

●박강남씨 별세, 박범순(광주매일신문 TV본부 부장)·현민·현숙(예술리어학원 대표)·현성씨 부친상, 이윤주(무등일보 지역사회부 부장)씨 시부상=발인 9일(화) 오전 8시30분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호(062-220-3352).